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 2025

HANNOVER MESSE 2025

참관 및 산업시찰단 모집

- 개최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9월 26일(금)
- 개최 장소 : 독일 하노버 / Messegelände 하노버 전시 센터

EMO(European Machine Tool Exhibition)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및 생산기술 전시회로, 유럽공작기계협회(CECIMO)가 주관하는 국제적 권위의 산업 전시회입니다.

[행사 개요]

- 정식명칭 : EMO (Exposition Mondiale de la Machine Outil)
- 개최지 : 독일 하노버 (주 개최지)와 이탈리아 밀라노 순회
- 주최기관 : VDW (독일공작기계협회)
- 개최장소 : Deutsche Messe AG (하노버 전시장)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전시회 : 공작기계, 자동화 솔루션, 생산기술 전시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특별 전시관 운영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 신제품 발표회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중국 상해 알루미늄 박람회 [Aluminum China 2025]	25년 7월 09일 ~ 7월 11일	중국 / 상하이
2	중국 광저우 국제 태양광 박람회 [Solar PV World EXPO 2025]	25년 8월 08일 ~ 8월 10일	중국 / 광저우
3	에센 용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5	태국 2025 SOUTHEAST ASIA [METEC] [GIFA] [WIRE,TUBE]	25년 9월 17일 ~ 9월 19일	태국 / 방콕
6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7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8	독일 뉴렌베르크 기술 및 기기 박람회 [POWTECH 2025]	25년 9월 23일 ~ 9월 25일	독일 / 뉴렌버그
9	호치민 기계 전시회 [MTEALEX 2025]	25년 10월 08일 ~ 10월 15일	독일 / 호치민
10	독일 엘리베이터 박람회 [INTERLIFT 2025]	25년 10월 14일 ~ 10월 17일	독일 / 뉴렌버그
11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12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13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14	옌티엔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5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6	상해 국제 주조 주물 박람회 [CSFE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7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8	STEELFAB	26년 1월 12일 ~ 1월 15일	아랍에미리트 / 샤르자
19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20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21	대만 국제 파스너 박람회 [Taiwan International Fastener Show 2026]	26년 4월 22일 ~ 4월 24일	대만 / 가오슝
22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23	밸브 박람회 아시아 2026 [Valve World Asia 2026]	26년 6월 22일 ~ 6월 23일	중국 / 상하이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대체육이란 무엇인가



연 윤 열 의
푸드톡

기후변화와 환경과괴로 인해 현재 푸드테크 산업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이라는 문제에 맞서고 있다.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축산업은 자원의 과도한 소비,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동물복지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윤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총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체육 기술은 단순한 식품 혁신을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체육 시장은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식물성 대체육 생산의 핵심 기술인 압

출성형공정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고수분 압출 기술은 식물성 단백질에 육류와 유사한 섬유상 조직감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압출성형기계는 식품 산업에서 이미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퍼핑스낵이라고 하는 소위 빵튀기 과자로부터 냉면, 당면 등 면을 뽑아 낼때도 압출성형기를 활용한다.

대체육을 만드는데 왜 이런 기계를 사용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고기의 씹는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고기는 수분 75%, 단백질, 20%, 지방 3%의 세 가지 기본물질로 구성되어 왔다. 주된 조직은 근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근세포는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섬유들이다.

이 근섬유들은 결합조직으로 둘러싸고 있다. 결합조직은 섬유들이 다발형태로 움직이는 뼈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접착제다. 지방세포들은 근섬유들과 결합조직 사이에 집단적으로 분포해 있다. 고기의 식감, 색깔, 맛은 대체로 근섬유, 결합조직, 지방조직의 상대적 비율과 배열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육은 비건을 지향하는 채식주의자

들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는데, 식물은 세포벽이 연약하고, 세포구성 자체가 고기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섬유질을 제외하고는 씹는 식감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고압에 의한 전단력과 응력을 동원한 압출방식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체육 압출기술은 대개 세가지로 개발되어 있다. ‘다중텍스처링’기술 ‘나노 구조화’기술, ‘센서 통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이다.

초기에 식물성 대체육은 주로 대두 단백질과 밀 글루텐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완두, 렌틸, 병아리콩 등 두류와 해조류 및 미세조류를 활용하기도 한다. 버섯은 대체육 소재로 두류와 함께 가장 유망한 식물성 소재로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단백질은 육류와 유사한 섬유상 구조를 자연적으로 형성하여 식감 개선에 효과가 크다.

미국의 임파서블푸드는 고기의 풍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콩과에서 추출한 레그헤모글로빈이라는 식물기반의 헴(Heme) 분자물질로 육류특유의 풍미와 색상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고 특허까지 등록하였다.

/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코스피5000, ‘한여름밤의 꿈’ 안되려면



기 지 수 첩
〈자본시장부〉

숫자는 정직하다. 대선 직후 2700선을 회복하더니, 10개월 만에 코스피는 다시 2800선을 돌파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강달러 기조의 완화, 외국인 자금 유입. 모든 퍼즐이 일순간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이번 랠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따로 있다. 단순한 수급의 변화나 대외환경 개선이 아닌, ‘정책 기대감’이다. 특히 ‘코스피 5000’을 외친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는 대선 기간 제시한 ‘단순 목표치’가 아니었다. 시장이 반응한 건 그 숫자보다 ‘그 말이 제도라는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정부의 ‘밸류업 공시’가 기업 자율

에 무게를 둔 점진적 접근이었다면, 이번에는 말뿐인 선언을 넘어 제도를 건드리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정책의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정부는 자사주 소각, 물적분할 신주 우선배정, 상법 개정 등 기업 행동을 유도하는 현실적 개혁 카드들을 꺼내 들었다.

정책의 신호가 방향을 제시하자, 수급은 반응했다. 특히 증권과 건설, 지주사를 중심으로 업종 순환이 빠르게 나타났다. 상장사의 이익 전망이 급격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주가가 오른 건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이다.

이제 시장의 눈은 다음 국면을 바라본다. 이미 일부 업종에서는 단기 과열을 경계하는 시선이 감지된다. 건설주는 코로나 19 시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근접했고, 은행주는 상승물이 다소 둔화됐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인 전환

인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랠리를 단지 ‘대선 직후의 단기 상승’으로만 치부하긴 이르다. 이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증시 부양이 아닌,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는 가상자산 정책에서도 궤를 같이한다. 규제를 넘어 제도화로, 산업 육성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도입은 자본시장 밖에 있던 자산들을 안으로 들어려는 시도다.

시장은 움직였다. 하지만 시장은 기억한다. 수차례의 ‘밸류업’이 말잔치로 끝났던 경험이 쌓여 있다. 이번이 다르다고 믿게 하려면, 말보다 빠른 입법, 신호보다 분명한 제도적 실행이 필요하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 랠리가 아니라, 모두의 손으로 불을 지핀 한국 증시의 진짜 ‘여름장’이 되길 바란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6월 10일 (음 5월 15일)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48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쉬지 말고 전진. 60년생 비정상적인 만남은 반드시 말썽이 생긴다. 72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곧 봄이 올 것이다. 84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언행을 조심.



소

37년생 우물가에서 송능 찾기 말고 순서를 지켜라. 49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61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자. 73년생 옳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85년생 많은 사람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



호랑이

38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해나 양보. 50년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나의 자산. 62년생 주변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한다. 74년생 일을 찾아서 해도 결과가 좋아야 과정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86년생 항상 화를 내면 발전은 없다.



토끼

39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51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63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니 즐겁다. 75년생 헛된 꿈 희망에 많은 기대를 한다. 87년생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용

40년생 한여름에 솜옷이 생각나니 건강유의. 52년생 대결이 시작됐으니 이기기만 하면 된다. 64년생 나와 관계는 없으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76년생 여류를 갖고 일을 관망하라. 88년생 흰머 들어다보이는 거짓말에 속게 되니.



뱀

41년생 한번 잃은 신용은 평생을 가니 작은 약속도 잘 지켜라. 53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65년생 언제나 계획하여 시작. 77년생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인생. 89년생 겉모양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면 오만될 수.



말

42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 아니겠는가. 54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된다. 66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지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78년생 가족은 항상 내 편이다. 90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들어난다.



양

43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55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를 간직해야 낭패를 면한다. 67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본다. 79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도 뻔하다. 91년생 과거의 스쳐 간 인연이 와서 혼란을 준다.



원숭이

44년생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른다. 56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68년생 소통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80년생 유래 상태 통과한 하루. 9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닭

45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 57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69년생 시련처럼 보이나 뜻밖의 좋은 일이다. 81년생 치과 방문을 미루지 말도록. 93년생 향기 있는 꽃의 유혹에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해야.



개

46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58년생 시련 없이 성공이 어렵다. 70년생 어여쁜 이상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82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94년생 오전부터 음주가 웬 말인가 정신을 차리도록.



돼지

47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찾아서 해보자. 59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71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을 것. 83년생 중심을 벗어난 투자는 손재수가 따르니. 95년생 작은 약속도 잘 지켜 신용을 쌓아야 미래가 있다.

김상회의四季

사랑 호르몬



“사랑을 하려는 예뻐져요~” 옛날 유행가 가사의 첫 구절이다. 사랑을 하면 세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우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처음 상대방을 만나서 사랑을 갈망할 때 분비되다가 그다음엔 열정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불같은 사랑의 감정이 솟구치게 만드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된다. 제 눈에 안경인 열정적인 사랑이 지나가고 슬슬 공작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단계로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옥시토신’이 사랑의 감정을 관장한다고 한다.

사랑의 역사만큼 무궁무진한 것도 없다. 엄청난 역사의 순간에도 그 근처에는 사랑 얘기가 깔려 있다. 중국의 고대 국가들, 하문주(夏殷周) 시대에도 각 왕조가 무너지л 때마다 어김없이 황제를 타락하게 만든 망국적인 미녀들, 경국지색의 요녀가 등장한다. 하나라의 말희, 은나라의 달기, 주나라의 포사, 당나라 때는 현종의 애비였던 그 유명한 양귀비가 대표적이다. 누구는 사랑 때문에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나라까지 망하게 만드는가 하면 누구는 사랑 때문에 로마교황에 반기까지 들어놓는 3년도 채 안 돼서 단두대에 보내기도 한다.

헨리8세 때의 앤 블린, 천일의 앤이라 불리는 그 앤이다. 조선의 숙종도 장희빈에 대해 엄청난 사랑꾼이었다가 사약까지도 내린다. 불타듯 타오르다가 식을 때는 이렇게 써날할 수가 없다. 사랑 호르몬이 고갈된 것일까? 이럴 때는 “그대 아직도 사랑을 믿는가?”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명리학적으로도 이런 기질은 무계합(戊癸合)의 조합에서도 강하게 보인다. 처음엔 뜨거웠으나 차갑게 식는 이슬이라고나 할까? 첫 눈에 반하나 결말은 원수처럼 헤어지는 종종 있는데 정재(正財)와 정인(正印)이 함께 있으면 바람피울 소지가 적게 나타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9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3650

스도쿠3650

스도쿠365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9	6	8	9	2	1	8
6	9	8	2	1	8	7	2	9
2	8	1	7	9	2	9	8	6
7	2	9	9	8	6	8	2	1
8	2	8	9	2	1	6	9	7
1	9	6	8	2	7	8	9	2
9	1	7	2	6	8	9	8	1
9	8	2	8	7	1	6	9	
8	6	2	1	9	9	2	7	8

6	8	8	7	9	2	2	9	1
9	9	2	2	6	1	7	8	8
2	1	7	9	8	8	6	2	9
2	7	1	6	2	8	8	9	9
9	2	8	1	9	7	2	8	6
8	9	6	8	2	9	1	2	7
7	2	9	8	1	2	9	6	8
8	8	2	9	7	6	9	1	2
1	6	9	2	8	9	8	7	2

aT, 급식·정부비축·품종다변화 등 ‘국산밀 산업’ 활성화

‘국산 밀 데이’ 추진해 교육·홍보
전문생산단지 설명회서 정책 소개
황금알 품종 추가… 선택 폭 넓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우리 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섰다. 국산 밀의 정부비축을 올해 총 2만여 톤(t) 규모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배 밀 품종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aT는 2020년대 들어 국내 밀 생산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산 밀 데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산 밀 사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개최된 국산 밀 데이 행사에서 aT는 기관당 최대 210만 원의 식재료비와 홍보비를 지원했다. 전국 43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1만80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홍보했다.



지난 5월27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2025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이 국산 밀로 구성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상 ‘국산 밀 데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단기적인 급식 제공을 넘어, 국산 밀의 맛·영양·환경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국산 밀에 대한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루 알려 소비 확대에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데

이는 학생들이 국산 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처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영양교사·조리 종사자 대상 간담회, 급식 박람회 참가 등도 함께 추진해 국산 밀 소비 기반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전국 103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컨설팅기

관 소속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aT는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산 밀 산업 육성계획 ▲정부비축 추진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국산 밀 품질관리 기준 연구 결과 등이다.

aT는 행사에서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이 올해 총 2만3000톤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매입을 진행하며,

매입 시에는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기존 매입품종인 새금강, 금강, 백강 외에도 ‘황금알’ 품종을 추가해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aT의 품질안전부에서 안전성 검사도 지원해 농가의 검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제빵용 품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제면용 품종과의 가격 차이 조정에 나서고, 수요처 맞춤형 재배를 유도해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이사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 5년이 지난 현재, 국산 밀 산업은 2차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정부비축 체계를 마련해, 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밀 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환급 이용대상 확대

농어촌공사 ‘환급 간소화 서비스’
2인 이상 공동명의 환급 청구 가능
온라인 신청 시 2일 이내 환급금 지급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 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토스,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
자사 계열사·인근 중소기업 함께 이용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에서 토스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 또는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모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단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홍보와 상담, 교육을 담당한다.

협약을 통해 토스는 자사 계열사와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 본사에서 상생형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오른쪽부터 형희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장, 정희연 토스 인사및 복지총괄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앞서 공단은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 10개소를 공동 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승인했고, 긴급돌봄 지원 등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 ‘해외 경험’ 청년 재취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 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있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스텝업’ 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시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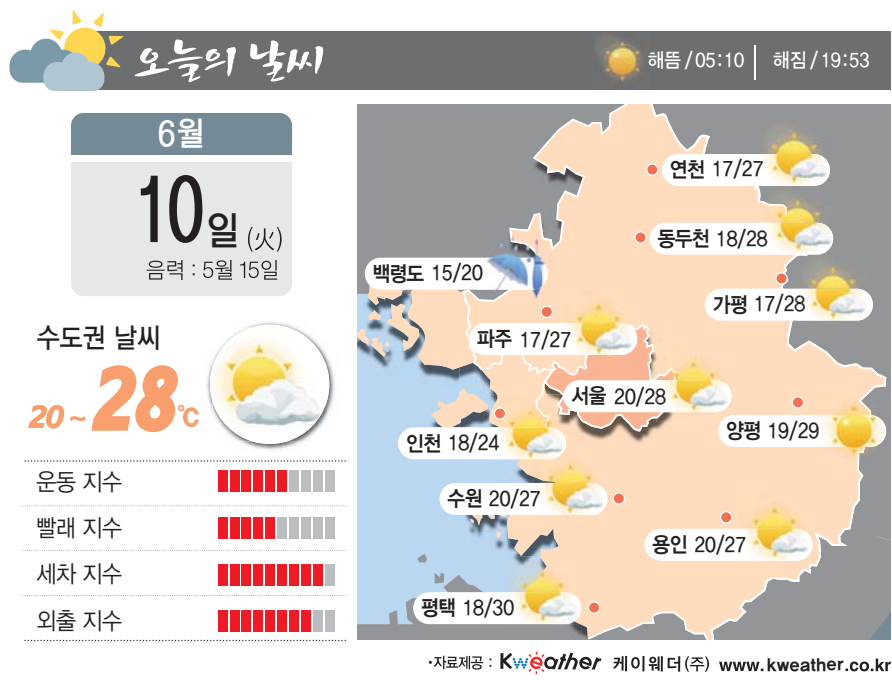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LA시위대·당국 대치 위험수위… 美당국 “비살상탄 사용 허가”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또 공습… 헤즈볼라 1명과 민간인 3명 사상

/사진 뉴시스

▲다시 트럼프 펀드는 머스크… ‘LA 시위’ 연방정부 대응 지지
▲교황, ‘배타적 민족주의’ 우려하며 “장벽 없애야”… 트럼프 겨냥한듯

▲美-이스라엘, 레바논 유엔군 UNIFIL 활동 중단 합의… 47년만 종료 위기
▲가자 구호물품 신고 항해해 온 톤베리 등 활동가 억류·구호물품 압류



편의점
반값 할인 등
초저가 경쟁
L1

metro®

Life

제약업계
'바이오 USA' 참가
첨단기술 총집합
L2



기후 지키고, 지역사회 돕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강성욱 하나증권 대표, 정은영 국립서울맹학교 교장,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증권, 하나자산운용 임직원,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7일 봄나들이 행사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하나증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G 금융시장 개척과 탄소배출권 거래 선도뿐만 아니라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실현 중이다.

◆채권선도거래·탄소배출권·글로벌 파트너십...ESG 금융시장 주도

지난해 하나증권은 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과 1445억원 규모의 5년 만기 'ESG 연계 채권선도거래'를 체결하며 ESG 금융 직접투자를 단행했다. 투자수익 제고와 ESG 경영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진된 이번 투자는, 하나금융그룹의 ESG 방침에 따라 하나증권이 목표한 ESG 수치를 달성할 경우 기존 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하나증권이 목표한 ESG 수치를 달성하면 총 428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다"며 "이는 연간 약 3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하나증권은 2021년 HSBC와 아시아 최초로 ESG 연계 금리통화스왑을 체결하고 글로벌 ESG 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의 ESG 금융 직접투자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분야에서도 하나증권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선정됐으며, 2022년 방글라데시에 태양광 정수시설 123대를 보급해 화석연료 기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원했다. 더불어 싱가포르 탄소배출권 거래소 CIX(Climatic Impact X)와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온실가

다양한 'ESG 금융' 직접투자 개척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업무협약 등 세계 온실가스 감축 플랫폼 확대 앞장 임직원 대상 'ESG 생활화' 캠페인도

사랑·생명·희망나눔 3가지 테마로 임직원 함께 지역이웃돕기 활동 펼쳐

점자도구 직접 제작, 서울맹학교 전달 학생들과 봄나들이 등 교감 나누기도

스 감축 플랫폼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증권의 ESG 활동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전사 임직원들의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회사의 경영 전략이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는 이 같은 흐름은 ESG 철학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활동의 기반에는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확고한 추진력과, 대표이사의 ESG 실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2023년 하나증권은 10대 ESG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생활화' 및 '1인 1기부 1봉사'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활동을 연계한 사회복지시설에 하나증권이 별도의 기부금을 매칭해 전달하면서, 개인의 실천과 조직 차원의 ESG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CONNECT 시리즈로 확산되는 ESG 실천...전국적 기부·봉사 활동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하나증권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약속을 성실히 이행 중이다. 전국 전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종로 서울맹학교 아동들과 함께 놀이공원 봄나들이를 다녀왔고, 6월 대전 행복한집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 대상 급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충남 금산 향림원을 찾아 아동들의 여름 물놀이를 함께하며 급식 지원 봉사도 병행했다.

이밖에도 하나증권은 '사랑나눔', '생명나눔', '희망나눔'이라는 3대 테마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캠페인 'CONNECT 시리즈'를 전개 중이다. '사랑나눔' 부문은 국내외 이웃돕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3년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 직원, 회사가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객은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

큐프로'에서 기부 배너 클릭으로 참여했다. 하나증권은 참여 1건당 1만원씩 기부했다. 임직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기부를 통해 회사 매칭 기부가 이뤄졌으며, 모아진 기부금은 피해 지역의 구호활동에 전액 사용됐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지원도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는 연탄 3000장과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마스크 6000장을 전달했다. 강원 원주시 원인동에서는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연탄 6000장을 배달하고 식료품이 담긴 행복상자도 지원했다. 특히 해당 활동은 '모두하나데이'라는 명칭 아래 그룹 임직원 자발참여 형태로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 부문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헌혈 캠페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매년 여의도 본사에서 헌혈차를 운영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집중 헌혈 기간을 통해 영업점 임직원들도 지역별 헌혈의 집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도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를 그룹 차원에서 진행했다.

'희망나눔' 부문은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 구성됐다. 서울맹학교의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직접 제작한 점자도구를 전달하며 인연을 맺었고, 하나증권 임직원 1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구 제작부터 전달까지 함께했다. 이어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봄나들이를 다녀왔으며, 직원과 학생이 1:1 매칭되어 놀이공원과 식물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교감을 나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 실천이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기업 운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와의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하나증권 임직원들이 '1인1봉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청파노인복지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증권 직원들이 서울맹학교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점자도구를 제작하고 있다. /하나증권

메트로 한줄뉴스



▲김하성, 트리플A서 2경기 연속 멀티히트...고우석 10이닝 무실점
▲포르투갈, 네이션스리그 우승...40세 호날두 A매치 138호골 /사진 뉴스시스

▲MLB 메츠 알론소, 통산 243호포 폭발...구단 역대 2위
▲프로농구 KT 최창진, FA 재협상 잔류...은퇴 13명·미계약 10명

▲한국 여자배구, 미국에 0-3 완패...VNL 첫 주 4패 마감
▲대구간송미술관, 검재 정선 '화훼영모화첩' 수리·복원 후 첫 공개